

R&D기술위원회 발족

지식경제부는 지경부의 대표적 R&D사업인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기획을 주도할 14개 분야 기술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선정하였다.

자동차 등 분야별 기술위원회는 지경부 국·과장 등 당연직 82명, 선임직 위원 215명 등 총 297명으로 구성되었으며, 임기 1년(연임 가능)의 선임직 위원 215명(당연직 제외) 중 유임된 79명을 제외한 136명(63%)이 신규 위촉되었고, 선임직 위원을 출신 유형별로 보면, 산업계 50.7%(109명), 학계 28.8% (62명), 연구계 19.1%(41명), 기타 1.4%(3명)으로 구성되었다.

〈분야별 선임직 위원 구성 현황〉

분야	위원			분야	위원			분야	위원		
	선임	유임	소계		선임	유임	소계		선임	유임	소계
자동차	7	7	14	바이오	13	2	15	나노기반	5	9	14
조선	9	6	15	의료기기	8	8	16	지식서비스	11	3	14
섬유의류	5	10	15	생산시스템	11	7	18	반도체	10	6	16
화학공정	6	10	16	생산기반	16	0	16	디스플레이	11	5	16
금속재료	10	6	16	청정기반	14	0	14	총 계	136	79	215

기술위원회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기획, 신규과제 확정 등 신규 과제 기획을 담당하게 되며,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은 금년 7월 본격 개시되는 '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 작업부터 본격 활동하게 된다.

역할을 보면,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획을 주도하고, 기획대상과제 선정·기획, 지원우선순위과제 선정 등 기획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수행한다.

신규과제 기획과정은 수요조사 등을 통한 연구기획대상과제 발굴 ⇒ 연구기획대상과제 확정 ⇒ 연구기획 수행 ⇒ 연구기획과제 평가 ⇒ 신규과제 확정 순이다.

구성은 기술분야별로 산·학·연·관 전문가로 20명内外로 구성된다. 지경부, 기표원, 특허청 등의 국·과장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(6명)과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임직(15명内外) 위원으로 구분된다. 분야별 담당국장과 민간위원장 등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.

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

기술위원회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기획, 신규과제 확정 등 신규 과제 기획을 담당하게 되며,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은 금년 7월 본격 개시되는 '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 작업부터 본격 활동하게 된다.

추진체계는 상위기구로 지원과제 및 과제별 예산을 확정하는 기술전략위원회(위원장 : 제1차관, 위원 : 분야별 위원장)가 운영되고, 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)이 14개 지원단 총괄, 기술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총괄한다.

기획기술전략위원회

(위원장 : 제1차관) – 사업 추진계획 심의 · 의결

업기술평가관리원 – 기술전략위원회 운영 지원

– 지원단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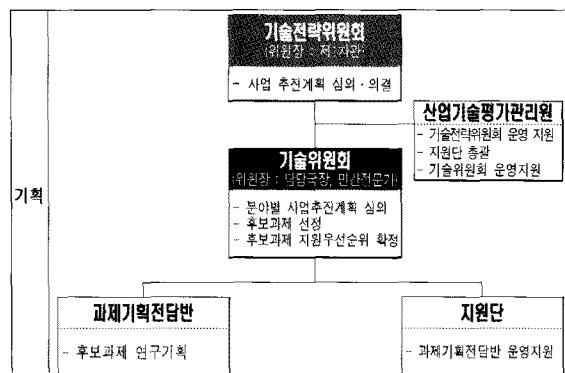
– 기술위원회 운영지원기술위원회

(위원장 : 담당국장, 민간전문가) – 분야별 사업추진계획 심의

– 후보과제 선정

– 후보과제 지원우선순위 확정과제기획전담반 지원단 – 후보과제 연구기획 – 과제기획전담반 운영지원

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분야별 기획체계를 살펴보면, 산업기술이 7개사업, 정보통신이 4개 사업, 에너지자원이 3개 사업이다. 정보통신은 전자정보디바이스, 정보통신미디어, 차세대통신네트워크, S/W컴퓨팅 등 4개 사업이다.



전자정보디바이스는 기술분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있으며, R&D기획방식은 기술위원회이다. 정보통신미디어는 홈네트워크정보가전가 디지털TV방송이며 PD기획방식이다. 차세대통신네트워크는 차세대이동통신과 BcN이고 PD 기획방식이다. S/W컴퓨팅은 정보보호와 S/W, u컴퓨팅이고 PD 기획방식이다.

산업기술분야에서는 바이오의료기기사업이 바이오와 차세대의료기기의 기술분야가 있고, 기술위원회 기획방식이다. 산업융합기술사업에서는 나노기반 기술분야가 기술위원회 기획방식이고, 융합기술 기술분야가 PD 기획방식이다. 청정제조 기반사업은 생산시스템, 생산기반, 청정기반의 3개 기술분야가 있고 기술위원회 기획방식이다.